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 (윤리와 사상)

성명 수험 번호 - 제 [] 선택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제자들에게

제자들이여! 식(識)이 탐욕을 떠나면 색(色)·수(受)·상(想)·행(行)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매임이 끊어지게 되어 다시는 성장하거나 뺏어나가지 못하게 된단다. 그리하여 식은 행동하지 않고, 그 뒤에는 머무르며, 그 뒤에는 만족할 줄 안단다. 이처럼 해탈하게 되면,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게 되며, 열반을 자각하여 '나의 생은 다하였고 범행(梵行)은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.'고 스스로 알게 된단다. ... (후략) ...

- ① 탐욕, 성냄, 어리석음[三毒]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.
- ② 나와 세계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.
- ③ 여덟 가지 바른 수행[八正道]을 통해 불변의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.
- ④ 내세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몸과 입으로 많은 업(業)을 쌓아야 한다.
- ⑤ 열반의 결과인 무명(無明)에 도달하기 위해 바른 생각에 힘써야 한다.

2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정치적 의사 결정과 제도의 정당성은 단순 다수결 절차를 통해 확보될 수 없다. 그 정당성은 시민들이 상호 간의 대화와 논증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바꿀 수 있어야 확보된다.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참여자들의 반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자세가 요구된다.

을: 선출된 의원들은 유권자를 수동적으로 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재량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. 민주주의는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에 대한 경쟁일 뿐이며, 시민의 역할은 선거에서 대표를 택하는 일에 머무른다. 시민은 정치적 영역에서 무책임하고 충동에 빠지기가 쉽다.

<보 기>

ㄱ. 갑: 대화 참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.
 ㄴ. 갑: 모든 정책 결정의 과정에 시민이 모두 직접 참여해야 한다.
 ㄷ. 을: 민주주의는 실제로 인민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인의 지배이다.
 ㄹ. 갑, 을: 시민은 항상 합리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존재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3. (가)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

갑: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.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것이요,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.

을: 인간 실존에는 심미적 단계, 윤리적 단계, 종교적 단계가 있다. 종교적 실존에서 인간은 초월적 신과의 만남을 통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.

(나)

<보 기>

ㄱ. A: 보편적 진리는 실존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?
 ㄴ. B: 주체적 결단을 통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?
 ㄷ. C: 절망을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가?
 ㄹ. C: 인간은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4. 갑,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. 갑은 부정,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

갑: 입이 맛을 좇고 눈이 색을 좇음은 본성[性]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명(命)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본성이라 하지 않는다. 부자 사이에 인(仁)이 있고 군신 사이에 의(義)가 있음은 모두 명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본성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그것을 명이라 하지 않는다.

을: 사람에게 스승[師]과 법도[法]가 있다면 큰 보배를 가진 것과 같고 그것이 없다면 큰 재앙과 같다.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본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이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[積]을 존중하게 된다. 스승과 법도는 노력을 쌓는 데서 얻는 것이지 본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.

- ① 군자와 소인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가?
- ② 인간은 인식 능력 및 실천 능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?
- ③ 인간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인과 의의 덕성을 실현해야 하는가?
- ④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수양을 통해 성인(聖人)이 될 수 있는가?
- ⑤ 소인은 지극히 크고 곧은 도덕적 기운[浩然之氣]을 길러야 하는가?

2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5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인간의 행위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은 점점 상위의 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른다. 이 목적은 최고선이다. 그렇다면 최고선은 무엇일까? 그것은 행복이다.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.
 을: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,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행복을 향해 전진한다. 그런데 완전한 행복은 인간적 본성의 범위를 넘어선다. 그러므로 다른 원리가 신에 의해 인간에게 추가되어야 하고, 이 원리를 신학적 덕이라 한다.

- ① 갑: 행복이란 자연적 경향성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.
- ② 갑: 덕은 건강과 명예처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.
- ③ 을: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.
- ④ 을: 인간은 스스로 성취한 덕에 의해 최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.
- ⑤ 갑, 을: 덕은 지식과 일치하고 지식으로서의 덕은 행복과 일치한다.

6.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성인(聖人)은 무위(無爲)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, 말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. 만물이 흥성하게 일어나지만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며 공(功)을 이루고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습니다.

그렇습니다. 성인은 마음을 자유롭게 노니므로[遊],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, 인의(仁義)를 교제 수단 정도로 여깁니다. 성인은 꾀하지 않으며 지식이 어찌 필요하며, 잃음이 없으니 얻음이 어찌 필요하겠습니까!



갑



을

- ① 갑: 시비를 명확하게 분별하여 남과 다투지 말아야[不爭] 한다.
- ② 갑: 경(敬)의 실천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.
- ③ 을: 만물의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.
- ④ 을: 나라의 규모를 크게 하고 백성의 수를 많게 하여야 한다.
- ⑤ 갑, 을: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예법[禮]을 제정해야 한다.

7. 갑,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고, 병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. 갑, 을,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“나는 생각한다.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.” 이 진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기 때문에,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.
 을: 우리가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네 가지 편견이 있다. 그것은 종족의 우상, 동굴의 우상, 시장의 우상, 극장의 우상이다.
 병: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.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.

- ① 갑: 철학의 제1 원리는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이다.
- ② 을: 유용한 지식보다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.
- ③ 병: 사회가 아니라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.
- ④ 갑, 을: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.
- ⑤ 을, 병: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을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.

8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. 국가가 정의로운 것은 실상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.
 을: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.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.

- ① 갑: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.
- ② 갑: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철학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.
- ③ 을: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.
- ④ 을: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.
- ⑤ 갑, 을: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한다.

9.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격물(格物)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바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. 의념[意]이 머무는 곳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서 그 바름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.
 을: 격물은 치지(致知)하는 방법이다. 한 사물에서 한 개의 이치[理]를 궁구하면 나의 지식도 한 개를 얻게 되고, 두 사물에서 두 개의 이치를 궁구하면 나의 지식도 두 개를 얻게 된다.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수록 나의 지식도 넓어진다.

- ① 갑: 모든 이치는 내 마음과 독립하여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.
- ② 갑: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.
- ③ 을: 도덕적 앎과 실천은 서로 의존적 관계[相須]임을 자각해야 한다.
- ④ 을: 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.
- ⑤ 갑, 을: 격물이란 의념이 머무는 곳[事]을 바로잡는 것[正]이다.

10. 갑,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. 갑은 긍정,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갑: 정(情)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, 성(性)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. 성에 대해서는 이(理)와 기(氣)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, 유독 정에 대해서는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는 것인가?
 을: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. 본연지성은 기질을 포함하고[兼] 있지 않은 것이지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. 따라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.

<보 기>

ㄱ. 발하는 것은 기(氣)이고 발하는 근거[所以]는 이(理)인가?
 ㄴ. 사단과 칠정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도덕 감정인가?
 ㄷ. 사단과 칠정은 연원[所從來]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하는가?
 ㄹ. 시비지심(是非之心)은 이(理)가 발하고 기(氣)가 따르는 것인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1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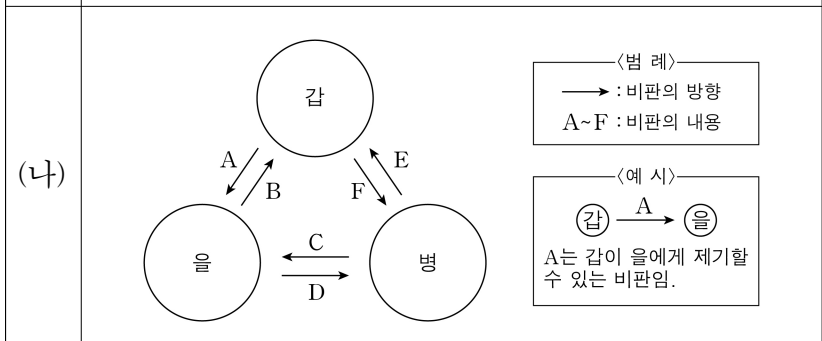
갑: 인간은 인상(印象)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. '이성적으로'라는 말은 '자연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하게'라는 뜻이다. 당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? 그것은 이성적 능력이다.
 을: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그것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- 영원에서 그리고 영원으로 -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. 이 필연과 동일한 필연으로, 신의 최고의 힘으로부터 무한하게 많은 양태(樣態)의 무한하게 많은 것들이 항상 따라 나올 것이다.

<보기>
 ㄱ. 갑: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나오는 만족일 뿐이다.
 ㄴ. 을: 자연은 인과적 필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다.
 ㄷ. 갑, 을: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.
 ㄹ. 갑, 을: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정념의 속박을 극복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12. (가)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
 갑: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.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.
 을: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.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.
 병: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. 우리 각자는 신체와 힘을 모두 일반 의지에 맡긴 후 다시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.



- ① A: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.
 ② B, D: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임을 간과한다.
 ③ C: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.
 ④ E: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.
 ⑤ F: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.

13. 한국 불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갑: 왜 일심(一心)이라 부르는가? 진여(眞如)와 생멸(生滅)은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일(一)이라 하며,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스스로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므로 심(心)이라 한다.
 을: 이치[理]에 들어가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은 선정[定]과 지혜[慧]가 아닌 것이 없다. 선정은 자성(自性)의 본체이며 지혜는 자성의 작용으로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.

- ① 갑: 다양한 현상은 마음과 별개로 고정적 실체로서 존재한다.
 ② 갑: 모든 종파의 이론들은 하나의 근원에 의해 회통되어야 한다.
 ③ 을: 돈오(頓悟)는 습기(習氣)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.
 ④ 을: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을 점수(漸修)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.
 ⑤ 갑, 을: 무아(無我)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.

14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갑: 자유는 시민적 자유 내지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. 국가선언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,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권력이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.
 을: 자유는 자의적 지배 권력의 부재를 의미한다.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하며, 이 국가와 동료 시민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 진정한 애국이다.

<보기>
 ㄱ. 갑: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.
 ㄴ. 을: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유를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.
 ㄷ. 을: 자신이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애국이다.
 ㄹ. 갑, 을: 자유를 실현하려면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15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서양 물건은 기괴한 기술과 교묘함으로 마음을 타락시키므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양인(洋人)으로 인해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재물이 고갈되어 나라꼴이 아니고, 예의를 지키던 자들이 재물에만 몰려 금수로 타락해 간다.
 을: 마음이란 내게 있는 본연의 한울[天]이니 본래 한마음이다. 마음은 선천과 후천의 마음이 있고, 기운 또한 선천과 후천의 기운이 있다. 천지의 마음은 신령하고, 천지의 기운은 천지에 가득 차 있으며 우주에 뻗어 있다.

- ① 갑: 성리학적 질서와 서양의 기술[西器]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.
 ② 갑: 서양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충족해야 한다.
 ③ 을: 새 세상이 현세에 도래할 것[後天開闢]이니 준비해야 한다.
 ④ 을: 무궁한 한울의 마음과 유한한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르다.
 ⑤ 갑, 을: 유교의 인륜을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를 통합해야 한다.

4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16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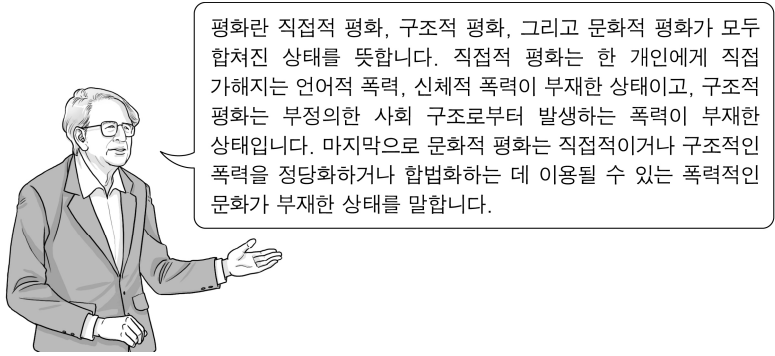
- 사람이 태아로 있을 때 하늘이 그에게 영명(靈明)하며 무형(無形)한 체(體)를 부여하였다. 이것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이것을 성(性)이라 말한다.
-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덕을 좋아하는 감정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. 이 성은 비록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근본은 하늘의 명령[天命]이다.

<보 기>

- ㄱ. 인간은 사덕(四德)을 실천함으로써 사단을 이룰 수 있다.
- ㄴ. 인간은 악을 싫어하는 기호(嗜好)의 본성도 지니고 있다.
- ㄷ.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통해 자유 의지[自主之權]를 형성한다.
- ㄹ. 인간의 선행은 자신의 공적이 되고, 악행은 자신의 죄가 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17.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

- ① 직접적 폭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다.
- ②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.
- ③ 평화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.
- ④ 테러나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이다.
- ⑤ 직접적 · 구조적 · 문화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.

18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- 갑: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. 이에 반해 자의(恣意)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,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도덕성 원리에 맞서 있다.
- 을: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도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중 어떤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.

<보 기>

- ㄱ. 갑: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.
- ㄴ. 을: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다.
- ㄷ. 을: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쾌락을 선호한다.
- ㄹ. 갑, 을: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19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어떤 살인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악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라. 이때 당신은 어떤 정념, 동기, 의욕, 생각만을 발견할 뿐, 다른 사실은 없다. 당신이 그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, 그 악덕은 당신을 피해 달아난다. 당신이 고찰의 방향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서,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한 부인(否認)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는 당신은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.

- ① 덕은 모든 관찰자마다 다르게 느껴진다.
- ② 덕은 직접 경험될 수 있고 이성으로도 발견될 수 있다.
- ③ 덕에 대한 식별은 이성애, 덕의 실천은 감정에 의존한다.
- ④ 덕은 성품에 관한 특성이 아니라 사물에 내재하는 속성이다.
- ⑤ 덕은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악덕과 구별된다.

20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- 갑: 정부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철회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.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쫓 피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이 개선되어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.
- 을: 정부는 조세 체계와 이자율의 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. 불황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, 특히 정부는 완전 고용을 위해 투자의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.

<보 기>

- ㄱ. 갑: 정부는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.
- ㄴ. 을: 정부는 시장의 조절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.
- ㄷ. 을: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.
- ㄹ. 갑, 을: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는 인정되어야 한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* 확인 사항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